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4년 11월 1일(금)  
--(음력 10월 1일)--  
Пятница  
1 ноября 2024 г.  
№ 43 (12110)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11월 4일은 러시아 국민 단결의 날이다.

(이예식 기자 사진첩에서)

## 단신

### 바이다코브 제1부지사, 특수군사작전 참전자와 만나

세르게이 바이다코브 사할린주 제 1부지사가 유즈노사할린스크 출신 특수군사작전 참전자들의 요구사항을 의논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만남을 가졌다. 만남에서 지역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 제공과 의료지원, 사할린 지역 특수군사작전 참전자연맹의 활동 문제가 제기됐다. 부지사는 특수군사작전 지역에서 돌아오는 장병들과 정기적인 만남을 갖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며, 다방면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 특수군사작전의 참전자들은 일정기간 해결책을 정부 부서가 조정하고 있는 문제들을 제기했다.

### 러시아 국민 단결의 날 맞이

11월 4일(월) 러시아 국민 단결의 날에 사할린주에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는 오전 10시 45분에 성탄 성전에서부터 '러시아는 나의 역사' 역사파크 까지 카잔 성모 이콘을 든 시민들의 행진이 있다. '러시아는 나의 역사' 박물관 앞마당에서는 11시에 민족예술단들이 멋진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고, 또한 민족 문화단체들은 민족 요리, 전통과 풍습, 예술을 소개하는 전시회를 연다.

이날을 앞두고 11월 3일(일) '위스토크' 교육훈련센터의 축구장에서는 민족 단체들 간에 미니-축구대회가 개최된다.

또한 11월 3일(일)에는 '러시아는 통합한다'는 표어 아래 전국에서 '예술의 밤' 행사가 펼쳐진다. 유즈노사할린스크의 모든 박물관과 도서관들도 이날을 맞아 다양한 프로그램의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다.

### <퀀트-인> 아동 공학 창작축제,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열려

10월 29일(화)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퀀트-인(양자 속으로)> 전국 아동공학 창작축제가 개막되었다. 이 행사에 러시아 15개 도시에서 온 12세-18세의 청소년 180명이 참가한다. 축제의 참가자들은 로봇기술(이동형, 비행형, 수중형), 하이테크(골드버그 장치, 교량), 프로 3D(게임 및 공학적 모형), 미디어 등 4개 분야에서 경연을 치렀다.

<퀀트-인> 축제 마지막 날인 11월 1일에는 국내 과학기술의 성과의 공학마라톤이 진행되며, 종합적 총결 후 참가자들에게 시상할 예정이다.

## 존경하는 사할린과 쿠릴열도 주민 여러분!

11월 4일은 국민 단결의 날로 전국적으로 우리가 함께 기념합니다. 이날은 조국의 운명을 위하는 러시아 국민의 책임을 상징합니다.

몇 세기 전 우리나라는 주권 상실에 실질적 위협을 당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내의 분열에서부터 외부의 침략까지 여러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이러한 시대는 정해진 듯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잠잠히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미닌과 포자르스키 민병대의 깃발 아래 모여들었고, 그들은 외국의 침략자들과 그 공범자들을 축출시켰으며, 젤스키 소보르(최고대표자회의)는 새로운 대표자를 선출하여 국가의 강력한 정권을 회복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위업으로 러시아는 혹독한 시련의 시기를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는 우리의 선조들처럼 조국의 운명과 우리 자신의 운명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사할린과 쿠릴열도에서 더욱 편안한 삶을 조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며, 러시아의 국력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 힘을 다해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는 사할린 사람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동향인 여러분, 국민 단결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

## 사할린 주지사, 실무차 벨라루스 공화국 방문

10월 27일-29일까지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벨라루스 공화국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양국 간 주택공공사업 분야를 비롯해 농업, 산업 및 유망한 분야에서 동맹국과의 경제적 협력 확대가 목적이었다.

사할린 대표단은 정부 부처장과 기업 대표들로 구성됐다.

벨라루스 공화국을 방문한 사할린 주지사는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과도 만남을 가진 가운데 회담에서 러시아의 유일한 섬인 사할린주와 동맹국 간 협력 확대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와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은 친환경가스 연료의 공공장비와 수소연료 전지의 광산덤프트럭 계열 생산 및 과학과 디지털기술 개발에 따른 기획을 논의했다. 만남 자리에서 리마렌코 주지사는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을 사할린에 초대했다.

방문시 사할린대표단은 '민스크 트랙터 공장', '암코도르', '벨라즈' 등 대규모 기계제조 기업들을 시찰하고 지도부와 만남을 가졌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사할린 지역에 대중교통에 뒤따르는 주택공공사업으로 주차장을 개선하는 과제를 실

정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CIS 지역에서는 디젤 연료의 공공장비 차량 최대 제조업체인 '암코도르'와의 협상이 이뤄졌다.

최근 몇 년간 사할린 지역에서는 벨라루스에서 생산된 버스, 농업 및 공공장비 차량 900대를 구입했다. 러시아 극동지역의 선도적 석탄채굴회사인 '동부광산기업'은 '벨라즈'기업과 성공적인 협력을 하고 있다. 현재 벨라루스의 기업은 러시아의 협력 회사를 위해 수소연료 전지로 구동되는 광산덤프트럭을 생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유 제반시설이 구축될 예정이며, 이 실험이 성공하면 광산덤프트럭 대부분이 친환경 차량들로 교체될 수 있게 된다.

사할린대표단의 방문 중 사할린주 디지털개발부와 벨라루스 공화국 디지털개발센터가 디지털전환 분야에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2015년부터 사할린 주정부와 벨라루스 공화국 간 양자협정이 시행되고 있다. 올해에는 3년간 시행계획이 체결되어 농업 분야를 비롯해 무역, 식품, 가공, 경공업 분야 등 전반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협력이 이뤄진다. 이번 사할린대표단 방문으로 양국 간 협력분야가 확대될 전망이다.

(주정부 자료에서)

새고려신문

## 2025년 상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5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계속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계속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6개월 구독료는 692,94 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신문 발행 표에 따라 새고려신문 다음 호는 2024년 11월 15일에 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본사 편집부)

Сообщаем, что согласно графику выхода газеты следующий номер «Сэ коре синмун» выйдет 15 ноября 2024 г. Редакция

### 사할린한인연합회, 재외동포청 방문에 대한 간담회 개최

지난 10월 26일(토) 사할린한인연합회(회장 김홍지) 주최로 유즈노사할린스크 외곽에 있는 '루스코예 바로코'연회장에서 7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간담회가 조성되었다.

간담회에는 사할린한인연합회 임원, 지방 한인회장,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회장 립종환)의 임원과 이 단체 산하 노인정 어르신들, '사할린한인'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회장 천영곤)의 대표들, 연합회 회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의 주요 목적은 10월 중순에 한국 재외동포청을 다녀온 사할린한인연합회 대표단의 보고였다.

사할린대표단은 김 라이사 연합회 사무국장, 고영순 마카로브 회장과 최영구 (샤프-페테르부르크) 대표로 처음엔 구성되었는데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김 라이사 대신 유영희 사할린연합회 부회장이 한국으로 가게 되었다고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주최측에서 설명했다.

이날 유영희 부회장은 지난 10월 17일 재외동포청 변철환 차장과 아

주러시아동포과 정선호 과장과 만나서 사할린에서 준비한 호소문(러시아어 및 한국어 호소문, 대표단 방문에 대한 기사 본지 2024년 10월 25일 호에 게재 - 기자주)을 전달하고 재외동포청에서 이야기가 잘 되었다고 전했다. 재외동포청에서 연합회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재외동포청에서 이번 대표단 방문을 위해 많은 사할린동포들이 일시 모금을 했다는 말에 놀라워 하기도 했다고 한다. 고영순 마카로브 회장은 재외동포청에서 건설적인 얘기가 많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사할린연합회의 김 라이사 사무국장은 호소문을 만든 상황을 이야기하고 러시아어로 된 호소문을 낭독했다.

간담회에서는 앞으로 계속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간담회는 점심식사와 휴식시간으로 이어졌다.

(배순신 기자)

### '희망'무용단, 모스크바 구제주 그리스도의 대성당에서 공연

사할린한인문화센터 소속 '희망'무용단이 제12회 국제 자선 포용적 무용축제(인클루시브 무용 축제)에 출전하여 최우수상을 받았다. 제12회 국제 자선댄스 페스티벌 인클루시브 댄스(Inclusive Dance)는 최대 규모의 포용적 댄스축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우선 각자 준비한 무용을 영상으로 보내고, 심사를 통과하면 모스크바로 초대된다.



'사할린 댄스 세계'의 일원인 '희망'무용단(단장 한덕순) 단원 대다수는 70세 이상이다. 따라서 포용적 무용 축제에서 참가가 가능했다. 무용단은 한민족 문화와 예술을 보급하며 민족 무용을 많이 전하고 있다.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연이 공고된 가운데 러시아 전국에서 232개 단체가 이 축제에 참가했다.

8월 1일 수상자가 발표되어 '희망'무용단이 '성인 및 시니어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최종 행사들이 10월 25일부터 31일까지 모스크바에서 펼쳐졌는데 이에 22개 지역을 대표하는 66개 단체가 참가했다.

한민족 무용단은 지난 27일 대형컵 콩쿠르 프로그램에 부채춤으로 출전했고, 28일에 갈라공연에서는

춤추며 산다란 춤으로 관객들에게 기쁨을 전하려고 노력했다.

안무를 김 예브게니야 '에트노스'학교 교사가 연출한 가운데, 모스크바 경연을 앞두고 '희망'무용단은 매일매일 몇 시간씩 춤을 연습해왔다.

'희망'무용단 단원들은 이번 경연 출전과 수상에 대해 "대단한 축제였다.", "모스크바의 구제주 그리스도의 대성당 (교회 대성당들의

홀)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게 영광이었다.", "축제에서 장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겨내려고 하는 사람들의 훌륭한 모습이 대단했다.", "한민족 춤의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어서 기뻐다.", "우리 춤에 반하는 관객들을 보고 너무 반가웠다."는 소감들을 표명했다.

모스크바에 거주하는 사할린 출신의 한인들이 참석해 '희망'무용단을 응원했다. 모스크바 사할린한인회(회장 김태성)에서 대표로 나온 회원들은 꽃다발과 과일 바구니를 전달했다.

희망'무용단은 한인행사를 비롯해 다양한 축제, 자선 행사, 사회복지 시설에서 자주 공연하고있으며 앞으로 도 관객들을 춤으로 반길 것이라고 전했다.

(배순신 기자)

(사진: '희망'무용단 제공)

## 이 모 저 모

### 사할린 인공지능 분야, 모스크바 포럼에서 높이 평가

모스크바에서 열린 <2024 인포테크(정보기술)>인공지능 포럼에서 인공지능 분야에서 사할린의 경험이 높이 평가됐다고 사할린 주정부 왜체슬라브 알렌코브 부총재가 전했다.

최근 사할린 지역에서는 두 개의 시범 기획이 활발히 개발되고 있는데 하나는 의료와 관련된 것으로 위험군에 속한 환자들의 신경망을 찾아내는 것이다. 인공지능은 의사들이 암의 초기단계를 발견하도록 돕고 있어 성공적인 치료의 기회를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

둘째는 교통사고의 위험 감소를 대상으로 하는 기획으로서 인공지능기술은 운전의 유형을 분석하고, 특수앱을 통해서 운전자에게 사고의 위험을 경고하며, 신경망은 도로의 상태를 평가하고, 최적의 경로를 구축하도록 돕는다.

이 기획들은 인공지능을 통한 지역 전환을 위한 '사할린-인공지능' 글로벌 프로그램의 한 부분이다. 이 기획 실행에 스베르반크, 사할린주 디지털화부, 협력 회사들의 전문가들이 관여하고 있다.

### Сахалинский опыт в сфере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высоко оценили на форуме в Москве

На ИИ-форуме «Инфотех 2024» в Москве опыт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сфере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был высоко оценен. Об этом рассказал зампред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егиона Вячеслав Аленьков.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ктивно развиваются два пилотных проекта. Один из них связан с медициной. Нейросеть выявляет пациентов из группы риска. Искусственный интеллект помогает врачам обнаруживать онкологию на ранних стадиях, что значительно повышает шансы на успешное лечение.

Второй проект направлен на снижение риска ДТП. Технологии ИИ анализируют стиль вождения и предупреждают водителей о риске аварии через специальное приложение. Нейросеть оценивает состояние дорог и помогает строить оптимальные маршруты.

Эти проекты - часть глоба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ИИ-Сахалин", которая направлена на трансформацию региона с помощью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В ее реализации задействованы эксперты Сбербанка, министерства цифров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компаний-партнеров.

### 사할린 선수, 중국 동계 수영 대회에서 2개 메달 획득

10월 26일(토), 중국 다롄에서 열린 동계 수영 종목 제23회

국제대회와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코르사코브 출신의 알렉산드르 루사코브가 눈부신 승리를 거두어 2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경기가 영상 14도인 황해의 얼음바다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에서 1000명 이상의 선수들이 참가했다. 혹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사할린의 선수는 뛰어난 기량을 한껏 발휘해 400m 코스 종목에서 1위를, 1000m 코스 종목에서 2위를 차지했다.

### Сахалинец завоевал 2 медали на соревнованиях по зимнему плаванию в Китае

26 октября. На чемпионате Азии и XXIII международном фестивале зимнего плавания, прошедшем в китайском Даляне, Александр Русаков из Корсакова одержал блестящую победу, завоевав две медали.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мин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ревнования, проходившие в ледяных водах Желтого моря при температуре 14 градусов, собрали более 1000 участников из Китая и России. Несмотря на суровые условия, сахалинец сумел показать выдающийся результат, заняв первое место на дистанции 400 метров и второе - на 1000 метров.

### 사할린, 세대 간 체스 시합 열려

10월 28일(월)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다양한 연령대로 이뤄진 4개 팀이 <세대 간 시합>체스시합에서 우승을 두고 경기를 펼쳤다고 사할린 스포츠부가 전했다.

'꼬마' 팀은 19세 이하의 체스선수들로 구성되었고, '청년' 팀은 1986년생 -2005년생으로, '성인' 팀은 1966년생 -1985년생으로, '베테랑' 팀은 1946년생 -1965년생까지로 구성됐다. 각각의 팀들은 10명(1명은 예비 선수)으로 구성되었고, 경기 시간은 10분이 주어졌다. 시합 결과 '청년' 팀이 1위를 차지, '꼬마' 팀이 2위, '성인' 팀이 3위를 차지했다.

### На Сахалине состоялся шахматный турнир поколений

28 октябр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четыре команды разных возрастов боролись за победу в шахматном «Турнире поколений».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команде «Малышей» состояли шахматисты до 19 лет, в «Молодежь» вступили спортсмены 1986-2005 года рождения. За «Старших» играли островитяне 1966-1985 года рождения, а «Ветеранов» - 1946-1965 года рождения.

Каждая команда состояла из десяти человек (один был запасным). На партию давалось 10 минут.

В результате первое место заняла «Молодежь». На втором месте оказалась «Малыши». Третье место досталось команде «Старшие».

### 유즈노사할린스크, <함께라면 모든 걸 할 수 있다!>포럼 개최

<함께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제 2회 주내 부모 포

럼이 개최된 가운데 고아원에서 자녀를 가족으로 입양한 사람들과 입양할 계획 단계에 있는 사람 100명 이상이 모였다.

포럼은 경험을 공유하고, 실제적인 정보를 얻기 위한 장이 되었다. 참가자들은 사할린주에 2천여 명의 고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위탁 아동을 대하는 일에 대해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받았다. 특히 새 가정에서 아이의 적응문제, 고아원으로 복귀 후 신뢰성의 회복 문제, 장애를 가진 아동과 활동의 특수성, 불우한 가정에서 느낀 삶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 등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많은 성공적인 입양은 자녀에게 낙인을 찍지 않고, 사랑으로 보살피주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게 도움 요청하는 데 달려있다고 강조한다.

###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стоялся форум «Вместе можем вс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стоялся второй областной родительский форум "Вместе можем все!", собравший более 100 участников – как тех, кто уже принял в свою семью ребенка из детского дома, так и тех, кто только планирует сделать этот шаг.

Форум стал площадкой для обмена опытом и получения актуальной информации. Участники узнали, что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считывается около 2 тысяч детей-сирот, и получили советы от экспертов по работе с приемными детьми. В частности, обсуждались вопросы адаптации ребенка к новой семье,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доверия после возвращения в детский дом, а также специфика работы с детьми, имеющими ограничения по здоровью или негативный опыт жизни в неблагополучной семье.

Специалисты подчеркнули, что во многих случаях успех зависит от того, чтобы не навешивать на ребенка ярлыки, дарить ему любовь и заботу, и при необходимости обращаться за помощью к специалистам.

### 사할린 그림, 톨라주 전시회에 출품

톨라에 있는 '야스나야 폴라나' 보호구역-박물관의 전시관에서 사할린 화가들의 작품 33점을 선보이는 '아.페.체호브의 사할린 책이 예술에서'란 전시회가 열렸다고 사할린주 문화.고문서부 논나 라브리크 장관이 전했다.

이 전시회는 사할린주 문화고문서부의 지원으로 체호브 책 박물관이 주최했다. 안톤 체호브의 기념일을 앞두고 사할린으로 여행과 '사할린 섬'책 출판을 통해 톨라의 주민들과 손님들은 회화와 그래픽에 표현된 사할린의 세계에 빠져들 수 있었다. 전시회에서는 작가 체호브가 방문했던 곳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할린의 과거와 현재를 반영하는 지역의 명소와 역사와 자연을 알아볼 수 있다.

사할린 체호브 책 박물관의 전시회는 12월 8일까지 열리며, 톨라주와의 지역 간 협력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8면에 계속)

새고려신문75주년 기념 문예콩쿠르 수상작

우리 아버지의 이야기

3위, 박정순, 1951년생,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우리 아버지가 태어나서 사셨던 고향은 충청남도...

아버지는 가족 중에서 막내였고, 위로 형님을 비롯해 누이 네 명인 대가족이었습니다. 이른 나이에 아버지는 부모님을 잃으시고, 형님네 가족과 함께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어린 자녀를 둔 형님과는 막내인 아버지와 나이 차이가 많아 형님은 언제나 아버지나 마찬가지로 보였으며, 형을 아버지처럼 존경하였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고향에서 지내셨던 시절은 일본이 한국을 점령했던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1943년 강제동원에 대한 불행한 사건은 아버지의 삶에도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형님은 가장으로서 동원 요청을 받았습니다. 큰아버지의 동원에 대한 시작은 온 가족에게 큰 부담이 되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고민 끝에 가족들과 상의한 후에 형 대신 막내인 우리 아버지가 징집에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일본 당국의 강제동원에 따라 아버지는 수많은 젊은 조선인들과 마찬가지로 사할린으로 끌려오시게 되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영토개발을 위해 요구했던 것은 힘찬 젊은이들의 육체노동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온갖 힘든 육체노동을 견뎌야 하

는 곳인 시네고르스크 탄광에서 일하시게 되었습니다...

낮선 땅에 홀로 남겨진 아버지는 고향을 그리워하셨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어느새 세월이 흘러가고, 그 동안 외국 땅에서 가족을 이루게 되어, 어느새 젊은 총각은 환갑의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긴 세월을 보내면서,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과 만나겠다는 희망은 빛나는 꿈이 되고 말았습니다.

60년대에 아버지는 편지쓰기를 도와달라고 자주 나에게 요청하셨습니다. 형님(큰 아버지)의 아들인 조카에게 예쁘게 글을 써야 하는데 나는 글씨체가 서툴렀습니다. 그때 학생이었던 내 나이는 열두 살- 열세 살 무렵이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편지를 쓰드리면서 고국에 있는 친척들과 대화를 나누던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느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저를 편지에 참여시킴으로써 저와 아버지의 형님(큰 아버지)의 자녀들과 연결시키기 위해 새로운 관계의 실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족과 만나고 싶은 아버지의 꿈과 희망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평생 동안 아버지께 고국으로 돌아가 그곳에 남아있는 친척들과 만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력을 통해 아

버지는 고국에 있는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했고, 수 년이 지난 후에도 그 관계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외국에서 태어난 우리 후손들은 90년대에 처음으로 아버지의 친척들을 만났고, 지금까지도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의 친척들 만날 때마다, 의사소통을 할 때 아버지의 영혼이 전하는 따뜻한 피의 통일감이 느껴집니다.

2019년 가을, 대한민국 정부가 러시아 정부와 합의하여 추진하는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사업에 따라 아버지의 유해를 비롯해 강제동원되어 사망한 분들의 유해가 한국으로 봉환되었습니다.

이 행사가 있는 지 몇 년이 흘렀지만 불가능해 보이는 일, 즉 아버지와 세상을 떠난 다른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는 단체에게 유가족들은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매우 엄숙하고, 명예롭게 거행되었으며, 합당한 한국의 국민을 배움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인생에서 우리 아버지는 매우 친절하시고, 품위 있으시고, 열심히 일하시며, 창의적이고, 활동적인 사람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 부터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편집부에서 약간 수정하여 올림)

허진원의 <사랑하기 좋은 날> 어느 늦은 저녁 나는 / 한강

어느 늦은 저녁 나는 흰 공기에 담긴 밥에서 김이 피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때 알았다 무엇인가 영원히 지나가버렸다고 지금도 영원히 지나가버리고 있다고 밥을 먹어야지 나는 밥을 먹었다

“두어 달 전 좀 느닷없이 저녁을 먹던 중 아내에게 이런 불평을 늘어놓은 적이 있어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작가가 그리 많지 않다는 기분이 들 때가 있다고. 그냥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꽤 진지했던 주제였던 것 같아요. 가브리엘 마르케스에 대해 길게 설명했던 것도 같고. 제 마음이 어딘가에 가 닿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나름의 논리를 펼쳤던 건데, 아내가 제법 진지하게 들어주며, 함께 우리 문단, 프랑스 문화에 대해 얘기를 나눴던 기억입니다. 프랑스 유학파인 제 아내는 굉장히 똑똑한 편이거든요. 미인이기도 하고, 아, 팔불출! 술도 한 잔 곁들였겠지요. 블루스도 썼으려나. 제 주변에 훌륭한 선후배 동료 작가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분들은 지금 이 순간도 수도승처럼 깜박거리는 모니터 커서를 바라보고 있을 텐데. 정말이지 존경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늦은 밤 아무렇지도 않게 전화벨이 울려 받아보면 한참 지금 진행중인 작품에 대해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명동교차에서의 다음 날 점심 약속을 잡곤 하지요. 맛있거든요. 이 무슨 시시껄렁한 얘기냐, 하시겠지만, 제대로 된 칼국수 한 그릇이 영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닌가, 아무튼.



물론 저 역시 도저히 머리가 안 돌아가는 느낌이면 다음 날 해치워야 할 일이고 뭐고 일단 미룬 채 곧바로 선배 작가님의 집으로 향하거나, 걷는 거 좋아하는 후배 작가와는 아무렇지도 않게 호젓한 길을 한참 걸곤 합니다. 그렇게 머리를 식히는 거지요. 좋은 인연 덕분에 다행히 이 인내를 요하는 마라톤 같은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달리고 있는 게 아닐까,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전업 작가의 삶이란 백수 건달 같기도, 파계승 같아 보이기도 하겠지요. 내노라 하는 대학에서의 강의 요청도 거절했던 건, 이 백수 건달 같은 일상이 정말 끝내주게 좋거든요. 일단 잘 써질 때가 많아요. 밤새도 되는 거니깐, 일단 써지는 느낌이 들면, 새벽이고 아침이고 미친듯이 휘갈길 수 있는 거니깐. 물론 퇴고와 발표, 화제성은 또 다른 영역이긴 하겠지만.

생각해보면 대학 재학 시절부터 취미로 올해에는 누가 노벨상이 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나눌 때, 저는 얼추 잘 맞추던 사람 중 한 명이었어요. 핀터도 제가 맞췄고, 물론 저는 다비드 헤어를 더 좋아했지만, 영국에서는 핀터가 될 줄 알았던 사람이거든요. 온 포세도 맞췄죠. 겐자부로도 아쿠타가와상의 그 <사육>이었던가 그런 끝내주는 소설을 빨리 접했는지, 굉장한 기분에 휩싸여, 겐자부로도 제가 맞췄던 기억입니다. 언젠가 <밥 딜런>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는 걸 보고, 그 뒤부터는 이런 관심 아예 끊었습니다만. 한강의 문학과 사회에 대한 끈질긴 집념이 결국 세계를 사로잡았어요. 한강 선배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을 전할 수 있어 기쁩니다. 하나 더. 앞으로 또 누군가 이런 큰 상을 받게 된다면 저는 이 지면에서 나오리라 예상합니다. 제가 소개한 시인들 중 한 명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니 좋은 시다, 이런 느낌 있으심 러시아어로 많이 많이 번역도 부탁드립니다! 제 희곡도! 아, 한강 얘기만 하다 끝냈어야 했는데..... 아무튼, 한강 최고, 최고!”

사할린, 러시아 소재 한국교육원장 워크숍 마무리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지난주 수요일부터 2박 3일간 사할린에서 진행된 러시아 소재 한국교육원장 워크숍이 무사히 마무리되었다. 워크숍에는 함석동 (로스토프나도누 한국교육원), 이창훈(하바롭스크 한국교육원), 문평길(블라디보스톡 한국교육원), 정승훈(사할린한국교육원) 원장이 참가했다.

첫날 일정은 '사할린 희생 사망동포 위령탑'과 '사할린한인 이종징용 광부 피해자 추모비' 헌화 및 참배, 러시아 한국교육원 당면 현안 공유 및 대처 방안 모색, 건의 사항 (한국교육부) 정리 및 전달, 유즈노사할린스크출장소 박상태 소장 주관 만찬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튿날 오전엔 각 교육원 현황과 운영 우수사례 및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였고, 오후엔 코르사코브시 소재 망향탑을 찾아 헌화하고 참배했다. 10월 25일, 셋째 날엔, 포자르스코예 촌(전 미즈호 마을) 근처에 있는 27인 한인피살자 찾아 헌화하고 참배한 후, 워크숍 소감을 서로 공유하고 내년 블라디보스톡 워크숍을 기약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쳤다.

교육원장들의 공통된 소감은 '혼자 보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 매우 의미 있고 소중했다!', '모두의 의견을 모아 한국교육부에 전달한 것도 좋았다!', '사할린에 와서 역사의 현장을 직



접 돌아보니까 한인 동포들이 겪었을 고통과 아픔을 훨씬 생생하게 잘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 등이었다.

(본사 기자) (사진: 사할린한국교육원 제공)

사할린 선수, 전국 태권도시합에서 74개 메달 획득

지난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열린 <극동컵> 전국 태권도대회에서 사할린의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경기가 캄차트카 엘리조워에서 열린 가운데 하바롭스크, 연해주, 캄차트카 변경, 유태인자치주, 사할린주에서 300명 이상의 선수들이 참가했다.

사할린 지역에서는 유즈노사할린스크를 비롯해 코르사코브, 흠스크, 네벨스크에서 출전한 84명의 선수들이 대표로 나섰다. 이들은 연령별 경기에서 74개의 다양한 메달을 획득한 가운데 우수한 결과를 얻은 사할린의 선수들은 제니스 권, 안드레이 쿠즈민니흐, 마리나 체르카소와, 아르쭌 볼리윈, 블라드 슬랍슈파긴, 티모페이 차가프 소브, 블라디슬라브 신, 알렉산드르 리시짜, 아르쭌 김, 폴리나 사푸노와, 크리스티나 코가이, 김길수, 예브게니 크랍첸코, 드미트리 김, 안드



레이 벨렌코브, 빅토리아 벨라예와, 왈레리아 키셀료와, 엘리자베타 코르키나, 밀라나 루만썰와, 알리나 최, 블라디슬라브 표도로브, 클리멘티 구선, 알베르트 장, 예고르 표도로브, 안드레이 벨렌코브, 이리나 자노와 등이라고 사할린주 스포츠부가 전했다.

(사진: 사할린주 스포츠부 제공)

국가 두마, 러시아로 불법 이주 처벌 강화

국가 두마가 2차, 3차 회의에서 러시아로 불법이민을 근절하기 위한 4개 법안을 채택했다.

새로운 조치는 불법이주 단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이주민에 대한 추가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주요 변경사항 중 하나는 만약 중대하거나 특수중범죄를 실행할 목적으로 조직이 형성된다면 불법이주 조직은 중대한 범죄행위로 분류돼 형벌은 8년 - 15년의 징역형을 받게 되며, 벌금은 3백만 - 5백만 루블리에 달하고, 10년간 직장에서 일할 권리가 박탈된다.

러시아에서 불법체류 중 여러 범죄를 저지를 시 처벌은 가중된다. 이 법안들은 위법행위에 대한 이주민의 책임감을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 «Счастливая мама» особенных детей

30 октября состоялась церемония закрытия фестиваля красоты и материнства «Счастливая мама» для мам детей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Фестиваль прошёл при поддержке администрации г.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Мы все знаем цену материнского труда: всепоглощающего, ответственного, ежедневного, без отпусков, выходных и перерывов на обед. А у мамы особенных детей - труд космических масштабов. Значит, и поддержка такого труда от семьи, ближайшего окружения, общества должна быть соизмерима.

Вся команда фестиваля: организаторы, администрация города, эксперты, партнёры и благотворители окружили наших прекрасных мам- участниц любовью и вниманием.

Наш проект был призван улучшить психологическое состояние участниц, чтоб они помнили, что они - женщины: нежные, милые, очаровательные. Хотелось показать, что грация и красота, а также ум, талант и уверенность в себе – это все есть у наших мам.

Фестиваль состоял из нескольких этапов.

Открытие состоялось 30 августа на территории учебного центра «Актив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Наши 12 участниц за эти два месяца получили возможность встретиться с разными экспертами.

Первая встреча прошла с творческим объединением «Хангыль» (руководитель - Анжела Пе) и коллективом корейского танца «ХИМАНГ» при РООСК (руководитель - Наталья Хан).

Анжела Анатольевна рассказала нам историю корейск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костюма, а с коллективом «Химанг» мы немного поучили основные движения в танце с веерами. Каждой участнице дали возможность примерить национальный костюм и попробовать в нём потанцевать. И как настоящие королевы, они сразили нас своей красотой в национальных корейских платьях.

Нам удалось организовать удивительные встречи с лучшими экспертами модной индустрии в нашем городе.

На территории объединения модных индустрий ОМИ участницы побывали на следующих мастер-классах: психологическая поддержка и основы медитации, стиль одежды, макияж. А также здесь прошла итоговая фотосессия участниц.

В школе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фотопозирования и дефиле «MARRU MODELS» мы смогли показать каждой участнице её уникальность, помогли раскрыть себя, найти свой идеальный ракурс и выглядеть на фото расслабленной, уверенной, красивой..



В рамках фестиваля прошло большое спортив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на нижней площадке СТК «Горный воздух». Для семей участниц фестиваля и членов ЮСАНОПИИ «ВИКТОРИЯ» здесь состоялась встреча с фитнес-тренером Маргаритой Правдюк. Для детей был организован мастер-класс по изготовлению фигурок из воздушных шариков, устроили небольшую концерт и чаепитие.

Следующий тёплый выходной участниц был посвящён семье. На территории Эко-фермы (Роз-Агро) мамы готовили угощение- пянсе. А у детей и пап был курс зоотерапии и захватывающая экскурсия по территории фермы. Мастер-класс по приготовлению пянсе для участниц провели женщины-активистки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организации корейцев «Сахалин Ханин». Это не первый наш опыт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этой организацией. Угостили наших детей пянсе ООО «Печенюшки Сахалина».

Хочу выразить благодарность всем организациям и благотворителям за доброту и отзывчивость, за то, что дали нашим мамам возможность почувствовать себя прекрасными, насладиться своей женственностью, немного переключиться от своих забот.

Фестиваль «Счастливая мама» прошёл впервые. Мы надеемся, что он станет ежегодным.

**И Мин Дя(Наталья),  
организатор фестиваля,  
директор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АНО,  
представляющей интересы  
инвалидов «ВИКТОРИЯ»**

## В Долинске прошел фестиваль «В семье единой»

VII международный фестиваль «В семье единой» прошёл в г. Долинск и стал ярким событием, объединяющим культуры и традиции разных народов. Он стал заключительным мероприятием грантового проекта РООСК «И поколений связь, и нить традиций».

С приветственным словом выступил глава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городской округ «Долинский» Тугарев А.В. и председатель городского собрания Дворянинова Г. С.

Фестиваль порадовал зрителей замечательным концертом, в котором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ансамбль корейских барабанов «Ханьль», танцевальный коллектив «Ариран», спортивный клуб «Торнадо» и танцевальный коллектив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центра Perfect Sense. На сцене также выступили артисты Долинского района, в том числе солистка Анна Кокина, тан-



цевальный коллектив «Элевор», солистка Олеся Морозова и многие другие.

Кроме того, участники фестиваля смогли посетить мастер-классы по приготовлению пянсе и чхапче, а также по каллиграфии, сообщает Телеграмм-канал «Корейский телеграф».

## АСК провела встречу по итогам поездки в Агентство по делам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В октябре 2023г. была создана Ассоциац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АСК) с целью объединения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РФ и СНГ, представляющих интересы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Организация хочет добиться внесения изменений в Спецзакон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ускорить решение проблем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Надо отметить, что данный закон не в полной мере удовлетворяет интересы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Наличие в законе понятия сопровождающие члены семьи(동반가족) лишает возможности репатриации и получения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й поддержки представителям второго поколения, родители которых умерли.

Летом был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тправить делегацию от АСК в Агентство по делам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Именно этот орган занимается проблемами зарубежных диаспор, отвечает за проект «Переселение на ПМЖ и поддержк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Многие корейцы сделали добровольные пожертвования на поездку делегации.

17 октября делегация в составе вице-президента АСК Ю Е Ни, председателя Макаров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АСК Ко Ен Сун и представителя Санкт-Петербургского 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Цой Ен Го встретилась в Агентстве по делам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с зам. руководителя Агентства Бён Чоль Хван (변철환 차장) и начальником департамента Азии и России Джонг Сон Хо (정선호).

Во время встречи были предложены необходимые поправки для внесения в спецзакон, которые позволили бы репатриацию п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рограмме представителям 2-го поко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вне зависимости живы их родители или нет, а также в адрес Агентства было передано Обращение (опубликовано на корейском и русском языках в газете «Сэ коре синмун» №42 от 25 октября 2024 г.).

В Агентстве с пониманием отнеслись к предложениям сахалинцев и заверили, что будут работать в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но требуются согласования с многочисленными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ми структурами, причастных к решению проблем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о время встречи также состоялся открытый разговор о ситуации, создавшейс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е.



В минувшую субботу, 26 октября состоялась встреча, на которой делегаты отчитались о поездке в Агентство по делам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На встрече присутствовало около 70 человек, среди которых бы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айонов, активисты АСК, ЮСМОСК, МООСК ЮК «Сахалин Ханин», представители 1-го поколения из «Клуба пожилых людей» при ЮСМОСК и др.

Ю Е Ни рассказала о поездке и встрече в Агентстве по делам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Ко Ен Сун поделилась впечатлениями о встрече, отметила добрую конструктивную атмосферу, желание сотрудничать.

Ответственный секретарь АСК Ким Раиса рассказала, как шла работа над Обращением и зачитала русский вариант текста Обращения.

На встрече была выражена огромная признательность всем, кто внес добровольные пожертвования для поездки делегации.

Участники встречи отметили необходимость продолжения работы по решению проблем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стречу продолжило живое общение.

(Наш корр.)  
(Фото предоставлено АСК)

## Сахалинские тхэквондисты завоевали 74 медали на Всероссийском турнире

Сахалинцы показали высокие результаты на Всероссийском турнире «Кубок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по тхэквондо (ВТФ). В состязаниях, которые прошли в камчатском Елизово,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более 300 спортсменов из Хабаровского, Приморского, Камчатского краев, Еврейской автономной 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ей, сообщило министерство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представили 84 спортсмена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Корсакова, Холмска и Невельска. Им удалось завоевать 74 медали разного достоинства в своих возрастных группах.

Лучшие результаты показали Денис Гон, Андрей Кузьминых, Марина Черкасова, Артем Бульвин, Владислав Шпагин, Тимофей Тхагапсов, Владислав Син, Александр Лисица, Артем Ким, Полина



Сапунова, Кристина Когай, Ким Гиль Су, Евгений Кравченко, Дмитрий Ким, Андрей Беленков, Виктория Беляева, Валерия Киселева, Елизавета Коркина, Милана Румянцева, Алина Цой Владислав Федоров, Климентий Гушин, Альберт Чан, Егор Федоров, Андрей Беленков, Климентий Гушин и Ирина Жданова.

(Фото мин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 Оппозиция против отправки наблюдателей на Украину без согласия парламента

Оппозиционная Демократическая партия Тобуро будет добиваться отставки министра обороны, есл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без согласия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ешит отправить на Украину военных для наблюдения з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ми войсками. Об этом заявил 30 октября на заседании Высшего совета партии депутат Ким Бён Чжу, комментируя намер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тправить на Украину группу наблюдателей в составе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национальной службы разведки и вооружённых сил. Задачей группы является анализ тактики, применяемой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ми войсками. Ссылаясь на статью 60 Конституции, которая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отправку вооружённых сил за границу исключительно с согласия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депутат заявил, что «отправка за границу даже одного военнослужащего эквивалентна отправке вооружённых сил». «Это чрезвычайно опасный акт добровольного участия в войне между Северной и Южной Кореями», - сказал Ким Бён Чжу. Он обвинил правительство, которое называет воинский контингент «наблюдателями», в попытке проигнорировать мнение парламента. Другой депутат Ли Он Чжу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добровольное вмешательство в войну, которую ведёт другая страна, «никогда не будет прощено».

## Политические партии спорят о возможных поставках оружия Украине

Южнокорейские политические партии высказывают противоположные мнения по поводу возможных поставок наступательного оружия Украине в ответ на развёртывание войск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 России. В ходе состоявшейся 24 октября проверки работы парламентского комитета по иностранным делам депутат от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Сила народа Юн Сан Хён заявил, что у РК есть международный, этический и политический долг поддерживать борьбу Украины за свободу, демократию и права человека. Другой депутат от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Ин Ё Хан сказал, что, государства-члены Организации Североатлантического договора (НАТО) оказали большую помощь РК во время Корейской войны. Депутат от ведущей оппозиционно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Юн Ху Док отметил, что РК не является членом НАТО и военным союзником Украины. Поэтому военная поддержка Украины невозможна без нарушения внутренних 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законов. Другой депутат от оппозиции Ли Ён Сон сказал, что военная поддержка Украины может рассматриваться как участие в этой войне.

## В РК создана лаборатория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28 октября в Сеуле приступила к работе национальная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ая лаборатория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Она создана в рамках усилий по вхождению РК в число ведущих мировых держав в области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Как сообщ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науки и информационно-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в работу лаборатории планируется инвестировать к 2028 году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94 млрд 600 млн вон (68 млн долларов). Средства будут вложены в организацию совмест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с зарубежными партнёрами и подготовку отечествен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Вместе с южнокорейскими коллегами в лаборатории будут работать учёные из США, Канады, Франции и других стран. Они будут проводить исследования в сферах нейронного масштабирования и создания базовой модели робота. Ранее в РК были созданы президентский комитет по искусственному интеллекту и совместная лаборатория с Нью-Йоркским университетом. В ноябре планируется создать институт безопасности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 Более 110 тысяч сеульчан будут сдавать в этом году ЕГЭ

110.734 старшеклассника и выпускника прошлых лет школ Сеула, желающих поступать в вузы в 2025 году, будут сдавать 14 ноября едины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экзамен. Как сообщили 28 октября в городском департаменте образования, это на 3.311 человек больше, че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53,6% экзаменующихся – старшеклассники, а 42,9% - выпускники прошлых лет. По всему городу будут открыты 22 экзаменационных центров, для работы в которых будут мобилизованы 19.300 учителей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служащих.

## Порты РК будут оборудованы системами для борьбы с дронами

На фоне обострения проблем с безопасностью транспортно-логистических объектов все крупные морские порты будут оборудованы системами для борьбы с дронами. Как сообщили 28 октября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морского и рыбного хозяйства, такие системы будут установлены в 2025 году в портах Пусан, Инчхон и Ульсан, а в 2026 году в порту Ёсу. Системы состоят из оборудования для определения приближения дронов - радаров, камер и радиочастотных сканеров, а также глушителей сигнала, которые выводят дроны из строя.

RKI

##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гимн как символ патриотизма

Сеул, 26 октября – ИА РУСКОР. Парламент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озвал заседание, чтобы принять новый закон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гимне, сообщили в пятницу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СМИ. Постоянный комитет 14-го Верховного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ВНС) провел в Пхеньяне в четверг 33-е заседание, сообщает Центральное телеграфное агентство Кореи (ЦТАК).

Агентство не раскрыло подробностей о законе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гимне, но наблюдатели предположили, что в нем, вероятно, описывается, как следует исполнять гимн во время различ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изменила текст свое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гимна после того, как в конц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лидер страны Ким Чен Ын назвал межкорейские отношения отношениями между «двумя враждебными друг другу государствами». Эксперты заявили, что из обновлен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гимна, возможно, убрали упоминания о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в целом.

«До сих пор существовали законы о национальном

флаге, национальной эмблеме и гражданстве, но не было конкретного закона о национальном гимне. Этот закон, по-видимому, регулирует и это», — сказал Хон Мин, старший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Корей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национальн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Хотя ВНС является высшим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м органом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он в основном служит для утверждения решений, принятых правящей партией. Министерство по воссоединению Южной Кореи заявило, что новый закон может быть частью более масштабных усилий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по воспитанию патриотизма.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есть законы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эмблеме и флаге, а в феврале 2023 года был принят закон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символах, чтобы укрепить чувств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сти и поощрять патриотизм среди населения, что, вероятно, и привело к принятию этого закона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гимне», — заявила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сс-секретаря министерства Ким Ин Э на брифинге для прессы.

## Мэр Сеула призвал к гибкости в иммиграционной политике

Сеул, 25 октября – ИА РУСКОР. Мэр Сеула О Се Хун призвал к смене парадигмы в иммиграционной политике Южной Кореи, подчеркнув важность принятия более инклюзивной визовой политики для решения демографических проблем.

«При общем коэффициенте рождаемости всего 0,7 и старении населения, которое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превысит 20 процентов, потенциальный кадровый кризис становится все более вероятным», — сказал О на Форуме по вопросам иностранных жителей и миграционной политике, организованн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города. По словам мэра, инклюзивная визовая политика может помочь удержать в городе разных иностранных жителей, указав на сложную визовую систему страны, которая включает 37 различных типов виз с более чем 80 подкатегориями. Хотя он признал, что нынешняя система может быть эффективной с точки зрения регулирования, он сказал, что она может ограничивать желания людей, стремящихся к долгосрочному проживанию. Мэр заявил, что, по его мнению, инклюзивная иммиграционная система может увеличить приток талантлив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со всего мира. В качестве

примера он привёл недавно введенную министерством юстиции новую визу «высшего уровня». Новая виза предназначена для активного привлечения талантов со всего мира в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ых отраслях, таких как искусственный интеллект, робототехника, квантовые технологии и аэрокосмическая промышленность. О сказал, что это может обеспечить прочную основу для привлечения и удержания высоко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необходимых для повышения глобальной конкурентоспособности Сеула и решения будущих демографических проблем.

О также потребовал, чтобы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приняло более реалистичный и гибкий подход в других важнейших секторах, таких как уход за престарелыми и сестринское дело, для дальнейшей поддержки потребностей города в рабочей силе. Местным органам власти следует предоставить больше автономии, чтобы они могли выдавать визы с учетом своих конкретных потребностей в рабочей силе.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центральн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контролирует всю иммиграционную политику.

## Стажировка для молоды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Агентство по делам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начинает приём заявок на 7-й и 8-й поток молодёжной программы.

●7-й поток. Возраст участников 15-18 лет(действительный возраст на 13.1.2025).

Период проведения с13 по 19 января 2025 года. Все вопросы можете задать, написав по адресу: teenscamp@okoss.or.kr

●8-й поток. Возраст участников 18-25 лет( на 13.1.2025г).

Период проведения с 14 по 20 января 2025 года. Вопросы можно задать, написав по адресу: youthcamp@okoss.or.kr

Заявки принимаются до 11 ноября 2024 года( до 23:59, Сеул)

Кто может участвовать в программе: зарубежные корейцы, живущие за границей не менее 5 лет, корейцы с иностранным гражданством, с ВНЖ, дети с корейским гражданством, живущие вне Кореи, усыновленны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дети из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Преимущество имеют следующие категории: написавшие отлично эссе о себе, потомки борцов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Кореи, лица, активно участвующие в общественной дея-

тельности, либо волонтерстве в стране проживания.

Заявку необходимо подать,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вшись на сайте: [www.korean.net](http://www.korean.net)

Необходимые документы для подачи заявки делятся на:

Обязательные документы для всех:

1. Заявка на участие, согласие на использование личных данных

2. Эссе о себе( на корейском либо английском языке)

Для определенных категорий:

1. Рекомендация(директор школы, ректор)

2. Документы, подтверждающие принадлежность к потомкам борцов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Агентство по делам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частично возмещает стоимость авиабилетов ( до 500 тысяч вон).

Проживание, питание, проезд, страховка на период программы оплачивается Агентством.

Списки, прошедших отбор, будут опубликованы 22 ноября на сайте [www.korean.net](http://www.korean.net)

Вы сможете проверить это в личном кабинете.

Вопросы о регистрации на сайте и личном кабинете можно задать: [youngmin@okoss.or.kr](mailto:youngmin@okoss.or.kr)

[https://t.me/koryoin\\_globalnet](https://t.me/koryoin_globalnet)

## В сентябре РК посетили 1,46 млн иностранных туристов

Число иностранных туристов, посещающих РК, впервые превысило уровень до начала пандемии COVID-19. По данным Корейской туристической организации, в сентябре в стране побывали 1.464.300 иностранных туристов, что на 33,4% больше, чем за аналогичный период прошлого года, а также на 0,3% больше, чем в сентябре 2019 года. Большинство иностранцев, посетивших

РК в прошлом месяце, составили граждане Китая (423 тыс. человек). Их число оказалось на 78% больше, чем в сентябре 2019 года. Далее следуют граждане Японии и Тайваня. Число южнокорейских граждан, побывавших в сентябре за границей, составило 2,5 млн человек, что на 12,8% больше, чем в сентябре 2019 года.

(KBS World)

##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стретился с президентом Беларуси Александром Лукашенко

Во время рабочей поездки в Республику Беларусь гла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стретился с белорусским лидером. На встрече были достигнуты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о расширени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единственным островным регионом России и союзным государством.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и Александр Лукашенко обсудили проекты по выпуску новой линейки коммунальной газовой техники и карьерных самосвалов на водородных топливных элементах, а также по развитию цифров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науки.

Приветствуя губернатора, президент Беларуси обратил внимание, что это первая личная встреча с ним в качестве руководителя региона. И повод для нее особый – 15 октября Александр Лукашенко подписал распоряжение об объявлении Благодарности Валерию Лимаренко за высокий профессионализм и значительный вклад в строительство Белорусской атомной электростанции. Напомним, до избрания на пост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работал в структурах «Росатома», отвечая, в том числе, з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объектов энергетики на территории других стран.

Глава союз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поблагодарил сахалинского губернатора также за укрепление белорусско-россий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уже в качестве главы региона.

– Вы больше, чем наш человек. Поскольку даже вы не представляете, что мы с вами тогда задумали, когда решили построить атомную станцию. Станция получилась хорошая, работает без проблем, – отметил Александр Лукашенко. –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 интересный и близкий нам регион России. В целом вклад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регионов в общую копилку торговли Беларуси и России – примерно 350 миллионов долларов. Меньше процента, но объемы колоссальные. 350 миллионов долларов на такое расстояние – это приличные объемы. Конечно, с учетом наших возможностей это мало. Я думаю, что в результате вашей работы в Беларуси и переговоров, которые здесь состоятся, мы выйдем на более серьез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За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приобрел около 900 единиц автобусов,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й и коммунальной техники белорусск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Ведущее угледобывающее предприятие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России – «Восточная горнорудная компания» – успешно сотрудничает с «БЕЛАЗом». Теперь белорусское предприятие намерено выпустить для российского партнера карьерные самосвалы на водородных топливных элементах. Для них будет создана заправочная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Если эксперимент пройдет успешно, ВГК сможет заменить большую часть автопарка на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ую технику.

– Мы активно газифицируем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Совместно с «Газпромом» запустили уникальную программу по переводу транспорта на газомоторное топливо. Создаем всю необходимую инфраструктуру – стационарные и передвижные газозаправочные станции. В программе визита – подписание с белорусской компанией «Амкор» соглашения о производстве дл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оммунальной техники на газомоторном топливе. «Амкор» производит хорошую технику, но на дизельном топливе. Мы предложили расширить линейку и выпускать технику также в газовом исполнении. Пилотные модели появятся во втором квартале 2025 года. Мы уверены, что это будет востребовано и в других регионах России,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Глава региона назвал и другие направлени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ью и Беларусью. В их числе – цифровое развитие. На островах успешно применяют систему управления регионом на основе данных, внедряют искусственный интеллект во многие сферы деятельности, используют беспилотные летательные аппараты в разных сферах народного хозяйства. Все это делает жизнь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комфортнее.

В Беларуси сахалинская делегация посетит Парк высоких технологий, в котором свыше 600 резидентов пользуются особым налогово-правовым режимом и занимаются разработкой программ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Будет обсуждаться вопрос регистрации белорусских ИТ-компаний на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ах, где тоже действует преференциальный режим, не имеющий аналогов в России.

Еще одно поле совмест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лежит в научной сфере. По поручению Президента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на Сахалине создается передовой кампус СахалинТех. С Белорусской академией наук планируется подписать соглашение о взаимодействии в таких сферах, как биотехнологии, материаловедение и искусственный интеллект.

– Уверен, что развитие дву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й в самых разных сферах принесет много пользы и Республике Беларусь, 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лагодарю за внимание и надеюсь на продуктив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 подчеркну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тметим, с 2015 года между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Республикой Беларусь действует двустороннее соглашение. В этом году был подписан план мероприятий на трехлетний период.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охватывает множество сфер – сельское хозяйство, торговлю, пищевую, перерабатывающую, легкую промышленность и другие направления.

**Сергей Байдаков провел встречу с участниками СВО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руководитель администрации губернатора и прави-

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ергей Байдаков 29 октября встретился с участниками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На встрече обсудили наиболее актуальные вопросы – обеспечение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жильем, оказание им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а также работу региональной ассоциации ветеранов СВО.

– Сегодня прошла очередная встреча с ребятами, которые вернулись из зоны проведения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Подобные встречи проводятся регулярно. Главное – услышать запросы наших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и оказать им всестороннюю помощь. Это вопросы медицины,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жилья, получения выплат и ряда других сфер. К людям, которые выполнили свой воинский долг, мы относимся с большим уважением и помогаем им вернуться в мирную жизнь полноценными членами общества. Именно такую задачу поставил перед нами наш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отметил Сергей Байдаков.

Во встреч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профильные региональные министры. Как сообщил глава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строительства Алексей Колеватых,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ействует льготная ипотека для участников СВО со ставкой 2%.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в программ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уже около 600 человек, 50 сделок оформлены.

– Президент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принял решение о введении специальных условий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жилья для участников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по аналогии с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ипотекой. Получить средства на покупку жилья можно по ставке 2%. Консультации и сопровождение оказывает Сахалинское ипотечное агентство. Волонтеры бесплатно подбирают для всех желающих варианты и подробно объясняют условия – как сформировать первоначальный взнос и оформить ипотеку, – рассказал Алексей Колеватых.

Актуальными вновь стали вопросы об оказании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и получении различных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документов. Как подчеркнул министр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рачи оказывают бойцам всю необходимую помощь во всех медучреждениях области. В прошлом году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инял решение, что военнослужащие будут получать лечение как в военных госпиталях, так и во всех областных гражданских учреждениях.

– В каждом медицинском учреждении области есть ответственные лица, занимающиеся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участниками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Нет вопросов, которые нельзя было бы решить. Наша задача – вернуть вас в состояние полного здоровья: как психического, так и физиологического. Если есть вопросы по оформлению инвалидности, предоставлению препаратов – мы все решим, – сказал Владимир Кузнецов.

– В первую встречу было очень много вопросов по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ю. Мы индивидуально отработали каждый случай, и уже через полтора месяца ситуация в корне изменилась. Индивидуальные вопросы остались, но системно все отработано и отлажено, – добавил Сергей Байдаков.

Следующим вопросом на повестке стала работа сахалинской ассоциации ветеранов СВО. Ее руководитель Назар Архангельский акцентировал внимание участников встречи на том, что членство д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военнослужащим бесплатно посещать спортивные объекты и различные культур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на территории области.

– Вступление в организацию происходит на безвозмездной основе без каких-либо взносов. Членство упрощает решение вопросов посещения спортивных объектов и культурно-досуговых мероприятий. Например, в «Аква Сити» мы планируем обеспечить работу инструкторов и тренеров, а военнослужащие,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инвалиды, смогут посещать тренировки вместе с сопровождающим – членом семьи. Это не только для того, чтобы физически реабилитироваться, но и для дальнейшего создания спортивных команд по плаванию. Планируется также создать команды по легкой атлетике и сноуборду,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Назар Архангельский.

– Для меня наиболее важными были вопросы на тему жилья и медицины. Мой вопрос касался земельного участка, сейчас присутствующие специалисты направят меня для получения более подробной консультации. Очень важно проводить подобные встречи, это позволяет задать свой вопрос лично, получить ответ напрямую от организаций и министерств и решить проблему быстро и эффективно, – поделился один из участников встречи.

Также 31 октября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йдет единый информационный день для участников СВО. Здесь представят порядка 250 вакансий, одним из наиболее привлекательных предложений станет работа в сахалинском промышленном агропарке – открыты 86 вакансий по различным профилям. Кроме того, для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будут работать специалисты соцзащиты, юристы, фонд содействия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будут представлены карьерные консультации, в том числе расскажут 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м обучении и переподготовке. Подготовлена развлекате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Отметим, на встрече также прозвучал ряд индивидуальных вопросов. Все они взяты на контроль профильными ведомствами, установлены сроки их решений.

## Набор волонтеров на IV Российско-Китайские молодежные зимние Игры стартовал на Сахалине

Общественных активист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глашают к участию в волонтерской работе на время проведения IV Российско-Китайских молодежных зимних Игр. Крупное спортив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состоится с 8 по 14 января 2025 года. Волонтеры пройдут обучающий курс, после чего их за-

действуют в 10 ключевых треках — от работы с иностранными гостями до помощи с медицинским обслуживанием.

Российско-Китайские молодежные зимние Игры — это уникальное событие, посвященное дружбе, взаимопониманию и широкому спектру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олодежи в двух соседних государствах, невзирая на различия в национальных традициях, культуре и языковой принадлежности. Основопологающие цели спортивного фестиваля — обмен опытом,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е подготовки атлетов, расширение дружественных связей между РФ и КНР, а также стремление к партнерскому взаимодействию в достижении высоких результатов. История Игр ведет отсчет с 2016 года, и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первые принимает международ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такого уровня.

«В 2024 году агентство по делам молодеж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Сахалинский молодежный ресурсный центр являются операторами федеральной волонтерской программы на островах. В связи с тем, что уже через два месяца наш регион принимает такое крупное событие, как Российско-Китайские молодежные зимние Игры, мы объявляем набор волонтеров. Без добровольческой помощи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не проходит ни одно большое мероприятие, и в этот раз, я надеюсь, мы привлечем большое число желающих получить уникальный волонтерский опыт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м фестивале», — отметила руководитель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молодеж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астасия Кожененько.

Волонтерский корпус, который будет работать на Играх, сформируют на конкурсной основе. По итогам отбора комиссия определит более 200 добровольцев, среди которых будут как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так 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Подать заявку и заполнить анкету можно на единой платформе «Добро.Ру». Участие в отборе уже принимают волонтеры из восьми регионов ДФО. Кроме этого,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уже сформировали волонтерскую команду из числа студентов СахГУ по профилю «Востоковедение». 45 человек проходят курсы по китайскому языку, изучая практические термины и принципы общения с делегатами из КНР.

В декабре 2024 года на базе арт-резиденции «Маяк» состоится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й модуль, по итогам которого волонтеры распределят по функциональным направлениям. Программу обучения составили при участии дирекций Волонтерских программ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 в Сочи и саммита БРИКС в Казани.

## Более 900 семей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лучили единовременную выплату на первого ребенка в 2024 году

Сахалинские семьи, в которых родился первый ребенок, могут рассчитывать на социальную поддержку в виде единовременной денежной выплаты. В 2024 году 945 семей уже воспользовались этой возможностью. Общая сумма выплат составила более 51 млн рублей.

Размер выплаты для родителей первенцев составляет 54 444 рубля. Соцподдержка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дополнительно к областному и федеральному материнскому капиталу.

Жительниц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Наталья Мальцева стала мамой первенца четыре месяца назад. О выплате она узнала из интернета. Социальные работники помогли оформить все необходимые документы.

– Конечно, такая сумма является отличной помощью. Мы купили на эти деньги необходимые вещи для ребенка, – поделилась Наталья.

Подать заявление может один из родителей или опекунов. Обязательным условием является совместное проживание с ребенком. Подать заявление можно в течение шести месяцев со дня рождения ребенка в Центре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ли на портале «Госуслуги».

– Эта мера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направлена на помощь молодым семьям и создание комфортных условий для воспитания детей в нашем регионе. Все семьи, которые соответствуют условиям выплаты, не должны упускать возможность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данной поддержкой, так как на выплату необходимо подать заявление в течение полугодия после рождения ребенка, – отметила министр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льга Орлова.

Для оформления выплаты потребуются паспорт; документы, подтверждающие проживание одного из родителей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заключении или расторжении брака; реквизиты банковского счета для перечисления выплаты. Заявитель также имеет право представить документы, которые можно получить через межведомственное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Это значительно упростит процесс получения выплаты.

За более подробной информацией можно обратиться в Центр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 месту жительства. Телефон: 8-800-201-00-99.

Отметим, единовременная выплата на первого ребенка способствует достижению целей и задач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Демография», который реализуется по поручению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ддержке семей с детьми уделяется самое пристальное внимание. Так, многодетные семьи на островах могут компенсировать 50 процентов стоимости при покупке или строительстве жилья. Сахалинцам и курильчанкам, ставшими мамами, выплачивается областной материнский капитал. Островные семьи пользуются ежеквартальными, ежемесячными и единовременными выплатами.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폐막... “역대급 성과5천800만 달러 규모 수출계약 체결 3일간 대장정 마무리

기업전시관엔 1만 4천여 명 인파 몰려  
비즈니스미팅 2만여회, 상담금액 6.3억 달러 달해...

역대 최대 성과 청년 인재 해외진출 돕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호평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24일 폐회식과 환송만찬을 끝으로 사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하며, 한민족 최대 비즈니스 장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는 재외동포청, 재외동포 경제단체가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 중소기업중앙회, 매일경제·MBN, 중소기업유통센터가 공동 주관하였으며 중소기업부가 후원했다.

이번 대회의 비즈니스 성과는 역대급이다. 전북도 우수상품박람회 등과 연계하여 개최하여 시너지 효과가 컸다. 사흘간 총 2만여 건의 수출 상담이 이루어지고 총 6억3천만 달러의 상담금액이 집계됐으며, 무려 5천800만 달러(한화 800억원 정도)의 실제 수출계약도 체결됐다.

22일 개막 직후부터 피에스비바이오(주)를 비롯한 전북도 4개 기업이 멕시코 등 4개국 4개사와 600만 달러(약 81억원) 규모의 수출계약을 맺으면서 대회 성공 개최의 신호탄을 쏘았다.

행사 마지막 날에는 무려 5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이 체결되며 행사의 대미를 장식했다. 이번 대회에서 기업전시관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장으로서,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다.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재외동포청 설립 이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된 행사로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에서 온 재외동포 경제인, 국내 기업인 등 약 3천 5백여명이 대회에 참가하였으며, 대회의 핵심 프로그램인 기업전시관에는 사흘간 1만 4천여명의 구름 인파가 방문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이전 대회와 달리, 지역의 문화와 환경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로 개최되어, 전북 지역의 전통문화를 프로그램에 녹여내는 등 참신한 시도가 참가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무엇보다 대학교 캠퍼스에서 개최된 만큼, 청년인재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청년들이 세계무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비춰줬다.

대학생 창업경진대회에는, '로봇의 신'으로 불리는 세계적인 로봇 공학자 데니스 홍(한국명 홍원서·53)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기계항공공학과 교수가 연사로 참여하여 특강을 진행했다.

또한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스타트업 경연대회가 개최됐으며, 국내외 유명 벤처캐피탈 심사위원들의 참여로 성황리에 진행



됐다. 본상 수상 기업으로는 ㈜다이나믹인더스트리, ㈜이브이엔솔루션, 에이트테크, ㈜로보스가 선정되었으며, 이들 수상 기업에게는 '글로벌(캐나다) 진출 프로그램' 참여 기회가 제공될 예정이다.

청년 토크콘서트에서는 구글 클라우드 코리아의 지기성 대표가 글로벌 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한 특강을 진행하며 큰 관심을 모았다. 특강에서는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필요한 역량에 대해 깊이 있는 조언을 전해 청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대회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동포 경제인과 국내 중소/중견기업, 청년인재들은 함께 모여 한인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확장했다.

○ 또한, 이번 대회의 역대급 성과로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우리 국내기업, 청년인재가 재외동포 경제인들과 함께 세계무대로 진출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마지막 공식행사인 폐회식에서는 변철환 재외동포청 차장, 김광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우범기 전주시장,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이 참석했다. 폐회식에서는 이번 대회 하이라이트 영상을 상영하고, 스타트업 경연대회 시상 등으로 진행됐으며, 환송 만찬을 끝으로 공식 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공동주관기관들의 열정적인 준비로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역대 최대의 성과로 마칠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이 청장은 “이번 대회 상담 건을 추적 관리해 계약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지역별 대회, 한상넷 온라인 플랫폼, 재외동포 비즈니스 자문단(OK Biz)을 통해 한인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확대해 실질적 성과가 지속적으로 나오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외동포청 제공)

# 국악신문, '세계 한복의 날' 맞아 사할린 동포들에게 한복 30벌 전달

(주)국악신문(대표이사 기미양)이 지난 21일 '세계 한복의 날'을 맞아 사할린 동포들에게 한복 30벌을 전달했다.



양주, 안산, 김포 지역에 영주 귀국한 사할린 동포들과 대구시가 주최하고 있는 제9회 '사할린의 밤'에 초청 공연을 하러 온 사할린한국어교육협회 박영자 교사에게 한복을 선물했다. 사할린에 처음으로 한복을 보내준 분은 사할린한국어교육협회 임태식 회장이다. 2000년 당시 해화초등학교 학교장이었던 그는 학부모들에게 공고를 하여 1천벌을 기증 받아서, 세탁을 하고 새로 동정을 달은 700벌을 배에 실어서 사할린 동포들에게 전달했다.

임태식 회장은 “당시 한복 깃에 동정을 새로 달아야 하는 바느질 일을 맡아서 해준 사람이 국악인들이었다. 동포들에게 보낸다면서 부탁을 하니 기꺼이 해주셨다. 이매방 선생 제자들 20여 명이 일주일 동안 바느질을 해서 새옷이 된 한복 700벌을 사할린 동포들에게 보내게 된 것이다. 당시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라고 전했다.

올해 3월에 경기도 안산에 아버지를 모시고 영주귀국한 정정우 씨는 아버지와 한복을 입어보면서 “한복을 입으니 한국인이라는 소속감이 강하게 느껴진다. 사할린에서 태어났지만 비로소 고향에 돌아 온 것 같다.”고 전했다.

한복을 받은 김포동진사할린동포회 최정순 회장은 “작년에 받은 한복 12벌은 이번 여름에 사할린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협회 임종환 회장의 요청으로 사할린에 가지고 갔다. 공연팀들 한복이 모자라다는 것이다” 이어 “우리 김포 할머니들이 한복을 입고 마지막 사진을 남기고 싶어 한다. 이번 한복은 작년보다 너무 곱고 이쁘다. 그리고 2021년 2차 영주귀국한 50대, 60대들에게 전통한복을 입고 싶다.”라고 전했다.

(국악신문)

# 월드옥타 “일냈다” ... 한국청년작가 23인 작품 135점 전시 ‘대박 조짐’

현지시간 10월28~30일 오스트리아 빈서 ‘한국 청년 아트페어’ 개최'제28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겸 비엔나 엑스포' 부대행사K컬처 관심고조로 개막전 부터 주목... "전시기간 전 작품 다 팔릴 것" 기대

한국청년작가 23명의 그림 135점이 오스트리아 빈에 걸렸다. 20대 후반에서 40대 후반 사이의 한국청년 작가들의 작품이 이처럼 한꺼번에 해외 전시공간에 선보인 것은 처음이다.

이같은 일을 해낸 사람은 다음아닌 박상운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회장과 부인 송효숙 여사다. 월드옥타가 10월 28일~11월 1일 빈에서 개최하는 '제28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및 비엔나엑스포' 부대행사로 이같이 의미있는 일을 해낸 것.

이번 일을 기획한 월드옥타 박상운 문화CSR 부회장은 “한국작가들로만 해외에서 이렇게 전시를 여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일 것”이라며 “이번 전시의 최연소 작가는 97년생이며 30대 후반이 제일 많고, 전부 50대 미

만 청년작가라면 설정을 해서 작가와 작품을 엄선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세계한인경제인대회와 비엔나 엑스포에 참석한 전세계 월드옥타 회원들이 이번 전시를 보고 한국청년 작가의 작품을 구매해 각 나라로 돌아가 회사나 집에 걸어놓고 있다가 현지 갤러리와 연결해준단지 하면 우리 청년작가들의 작품이 전세계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한국청년 아트페어는 'ASTRIA CENTER VINNA' X4홀에서 현지시간으로 10월28일 오후5시 개막해 30일 오후6시까지 진행된다. 28일 전시회가 개막도 하기 전에 16점이 이미 판매가 이뤄져, 주최 측은 행사기간 전 작품이 주인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부회장은 “이번 대회와 더불어 한국청년



'ASTRIA CENTER VINNA' X4홀에서 현지시간으로 10월28일 오후5시 개막한 한국청년 아트페어 전시장 모습. [황복희 기자]

아트페어 홍보를 SNS를 통해 또 비엔나 내 대학 등지에 많이 했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우리나라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해 K-컬처에 대한 해외의 관심이 높



한국청년 아트페어를 총괄한 박상운 월드옥타 문화CSR 부회장이 전시장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은 가운데 이같은 한국청년 작가들의 작품으로 아트페어를 열게 되어 현지의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신문)

# 이 모 저 모

(2편의 계속)

## Сахалинские картины привезли на выставку в Тулу

В галерее музея-заповедника "Ясная Поляна" в Туле открылась выставка "Сахалинская книга А. П. Чехова в искусстве", представляющая 33 произведе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художников. Об этом рассказала министр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Нонна Лаврик.

Организатором выставки выступил музей книги Чехова при поддержке Министерства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преддверии юбилея А. П. Чехова, его поездки на Сахалин и выхода книги "Остров Сахалин", жители и гости Тулы могут погрузиться в мир Сахалина, представленный в живописи и графике. Экспозиция позволяет увидеть места, где побывал писатель, а также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природой, историей и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ями региона, отражающими его прошлое и современные изменения.

Выставка "Сахалинская книга А. П. Чехова в искусстве" будет работать до 8 декабр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между музеями продолжится и в будущем.

## Томари 지역, 운전자의 날 맞아 자동차 경주 열려

10월 27일(일) 토마리 지역에서 운전자의 날을 맞아 활기 넘치는 자동차 경주가 열렸다고 지방 행정부가 전했다. 이 행사는 지방 국가교통순찰관과 함께 활동가들이 주최했다. 차량 경주에 교통경찰 직원들을 동반한 가운데 중앙광장에서 해안까지 주행에 10여대의 차량이 참가했다.

차량들의 깃대는 사할린주와 토마리 지역, 러시아 연방의 깃발로 장식되었고, 이 지역 주민들은 자동차경주 참가자들을 반겼다.

행사 개막에서 국가교통순찰관들과 청년근위대가 도로상에서 안전확보를 위한 교통규칙의 준수를 강조하며, 도로 안전운행에 대한 정보자료를 운전자들에게 배포했다.

## В Томари ко Дню автомобилиста прошел автопробег

В Томари прошел яркий автопробег, посвященный Дню автомобилиста, который отмечается 27 октября.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администрации района.

Мероприятие организовали активисты вместе с Госавтоинспекцией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В автопробег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более 10 машин, которые проехали от центральной площади до набережной в сопровождении сотрудников ГИБДД.

Колонна автомобилей украшалась флагам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Томаринского района 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Жители города с улыбками приветствовали участников автопробега.

В начале мероприятия молодогвардейцы и сотрудники Госавтоинспекции раздали водителям информационные материалы о безопасности дорожного движения, подчеркнув важность соблюдения ПДД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 дороге.

## 사할린예술전문대학, 가까운 시공원에서 <65개의 창작의 순간> 전시

유즈노사할린스크 가까운 문화.휴식 시공원에서 사할린 예술전문대학 65주년 기념 사진전이 열렸다고 지역 역사기록보관소가 전했다.

사진전의 제목은 <65개 창작의 순간>이며, 이는 사할린주 국가역사기록보관소와 55년 이상 연을 이어온 예술전문대학과 협력의 결실이다. 국가기록보관소는 문화와 예술 분야에서 대학의 사업에 대한 희귀한 문서들을 보관하고 있으며, 3년째 개최되고 있는 '사할린 아르헹페스트(고문서축제)' 기록 영화 문서축제의 공동개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최근에 이러한 협력은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

전시회에 출품된 사진작품들은 대학의 풍성한 역사와 사할린주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한 바를 보여주고 있고, 주 문화고문서부의 지원으로 예술전문대학은 매해 문화행사를 조직 및 진행을 하고 있다.

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한 예술전문대학의 학생들은 기록

사진을 관심있게 살펴보고, 현대 사진 속에서 자신의 동료들과 자신을 찾아보기도 했다. 이 대학의 안드레이 코스핀 학장은 대학의 학과 활동을 설명하고, 새로운 학과목 개설 계획을 공개했다. 또한 기록문서로 역사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진전 구성에 힘써준 기록관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 Сахалинский колледж искусств выставил в парке Гагарина "65 мгновений творчества"

В городском парке культуры и отдыха имени Юрия Гагарина открылась фотовыставка, посвященная 65-летию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лледжа искусств.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исторического архива региона.

Выставка, названная "65 мгновений творчества",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плод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историческим архиво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колледжем, которое длится уже более 55 лет. Архив хранит уникальные документы о деятельности колледжа в сфере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а, а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тало еще более тесным, о чем свидетельствует совмест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ахалинского фестиваля архивных кинодокументов "SakhArchivFest", проводимого уже третий год подряд.

Фотоматериалы, представленные на выставке, демонстрируют богатую историю колледжа и его значительный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культур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лагодаря поддержке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колледж ежегодно организует и проводит множество культур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На открытии выставки присутствовали студенты колледжа, с интересом рассматривавшие архивные фотографии и разыскивавшие себя и своих однокурсников на современных снимках. Директор колледжа Андрей Костин рассказал о деятельности учебного заведения и поделился планами по открытию новых направлений обучения. Он подчеркнул важность сохранения истории в архивных документах и выразил благодарность архивистам за создание фотовыставки.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025 год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ое полугодие 2025 г. — 692 руб. 94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МЕБЕЛЬНАЯ ФАБРИКА 1+2**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워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